

여름산사 가면 '문화와 만남'

◇ 지난해 8월 정토사에서 열린 연꽃축제.

- 낙산사** 산중음악회에 피서객 초대
- 백담사** 7일부터 만해시인학교 개교
- 인취사** 9일 5백여명 연꽃가 백련시사
- 은혜사** 22일 일연성사 기리는 음악회
- 정토사** 29일 연꽃축제 국악·무용 '한마당'

처마 밑의 풍경이 은은하게 흔들린다.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오며 흥겹고 구수한 국악의 선율을 타고 흠뻑 추는 것일까.

흥련, 백련이 만발한 연꽃가에서, 단청색 고운 처마 아래 대웅전 꽃살문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여름 산사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는 시가 있고 향기로운 차가 있다. 국악가락과 아름다운 우리춤, 그리고 신명나는 사물놀이도 한바탕 벌어진다. 아산 인취사, 인제 백담사, 영천 은혜사, 성남 정토사, 양양 낙산사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들은 불발터위는 물론 속진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며 여름까지의 장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취사 백련시사 아산 인취사(주지 혜민)에서는 9일 제5회 백련시사(白蓮詩社)가 열린다. 하얀 연꽃이 만발한 5백여평 연꽃가에서 열리는 이번 백련시사는 시낭송회, 서예, 그림전시, 국악, 현공다례, 풍물놀이 등이 어우러진다. 특히 이번 백련시사는 풍복군

및 독립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광복의 뜻을 새롭게 다지는 취지로 마련돼 더욱 뜻깊다. 혜민스님이 직접 만든 연꽃차를 달여 마시는 연꽃차회 순서가 하이라이트. (0418)42-6441

백담사 시인학교 만해 한용운스님이 불후의 명작 <님의 침묵>을 쓴 곳, 인제 백담사(주지 마근), 수량 중부하고 흰 압반의 원시계곡을 끼고 있는 백담사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제3회 만해시인학교(교장 고은)가 개설된다. 시 창작강의, 시인·평론가와의 대화, 시 백일장, 시낭송

회 등과 참선실수, 국악공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고은시인의 '만해시특강'과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한국현대시와 전통' 특강도 마련된다. (0365)462-3244

은혜사 음악회 일연성사 일반 709주기 을 맞아 성사의 자주 애국사상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한 음악회가 22일 오후 5시부터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다. 다례제와 함께 열리는 음악회는 경북도립교향악단의 협연으로 스페리도프 모음곡 '시대전진', 소프라노 윤현숙의 '그리운 금강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등 찬불가, 클래식, 가곡,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팔공산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0563)35-3318

낙산사 산중음악회 일본군 위안부역사 관 건립을 위한 산중음악회가 1일 오후 7시 양양 낙산사(주지 지홍)에서 열렸다. 김영동씨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풍물패 등이 '영산회상' '산행' 등을 연주하고 살풀이춤과 사물놀이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에 참여한 피서객들은 '8월 15일 광복 53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연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감동을 가누지 못했다.

정토사 연꽃축제 성남 정토사(주지 보광)는 29일 정토사 개산 16주년 기념 '은 누리에 연꽃향기 가득히'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1부 영가천도와 2부 수계법회는 대웅전에서, 3부 문화행사는 흥련과 백련이 활짝 피어있는 연꽃가에서 펼쳐져 흥겨운 국악과 불교무용을 선보이게 된다. (0342)723-9797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39>

온갖 냇물 바다로 들다

物外何山是舊遊 (물외하산시구유)
金剛自有雨花樓 (금강자유우화루)
千峰吐白雲兼畫 (천봉토백운겸주)
萬瀑生涼夏是秋 (만폭생량하사추)
隱靜臺上有仙景 (은정대상유선경)
斷髮嶺頭無世愁 (단발령두무세수)
橋下百川同入海 (교하백천동입해)
四輪迴處意悠悠 (사륜회처의유유)

물정 밖의 어느 산이 옛 놀이터
금강산에 저절로 우화루 있지
몇 봉우리 솟는 흰 빛 밤도 낮이요
시원하게 쓸는 폭포 여름도 가을
은신대 위에는 신선 경치가 있고
단발령 높은 고개 세상 근심 끊는다
다리 밑 온갖 냇물 함께 바다로 가듯
네 바퀴 돌아오는 곳 유유한 여유.

상월(霜月·1687~1767)대사가 풍악의 보인대사에게 주는 시이다. 골, 대인관계의 수증시이다. 그러함에도 주고 받는 의미의 심정적 정감을 말함의 거의 없다. 첫구에서 물이라 하는 사물 밖의 초연한 자세기에 인정적 서술을 외면한 채 자연의 실상을 말하여 서로의 이심전심의 경계를 나타낸 것인가. 금강산에 있는 스님에게 주는 시기에 산사를 에워싼 주변 풍경을 말하여 두 사람의 정리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옛 놀이 중에 서 어느 곳이 사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격외의 곳일까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보인스님이다. 이 첫 구에서 벌써 격외의 벗임을 암시했다. 그러한 놀이터로 떠오르는 곳이 우화루이다. 누대의 이름도 멋이 있다. 비가 꽃으로 내리는 누대이다.

이 무엇일까. 물론 구름이다. 이 피어오르는 구름에 대낮도 밤이다. 이것을 뒤집으면 밤도 낮이다. 그래서 밤도 낮이라 하였다. 구름에 가린 적조의 고요함 또한 낮밤의 구분이 없다. 내리지는 폭포의 서늘함은 산 속의 여름을 빼앗아간다. 여름을 느끼지 못한다. 향시 단발령이니 이미 머리를 깎은 개개이다. 머리 깎음은 속계를 여월의 상징이다. 자연 세속 근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온갖 흐름의 조종은 바다이다. 우리의 삶도 이 물이 바다로 조종삼듯 진리의 깨우침으로 조종삼아야 한다. 이런 경지에서 사름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모든 것은 유유자적할 수밖에 없다.

이종천 <동국대 교수>

국보 301점·보물 1227점 '만남기회'

케이블TV '국립영상' 5일부터 내내날까지

5천년 역사속에서 조상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석굴암, 팔만대장경, 첨성대 등 세계에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 하지만 석굴암이나 팔만대장경이 국보 몇호 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과연 몇명일까? 케이블TV 국립영상(ch·14)은 6월 1일부터 국보 1호인 '승례단'을 시작으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를 호법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망한 다큐멘터리 '문화재 순례'를 방영하고 있다. 매주 월·수·금요일(오전 10시50분~오전 11시) 주 3회에 걸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내내날까지 국보 301점과 보물 1,227점 등이 소개된다.

이 프로그램은 경주박물관 강우방관장을 비롯한 문화재 전문위원과 해당 문화재를 소장한 사찰의 스님 등 전문가들이 국보와 보물이 있는 현장에서 문화 유산의 역사와 유래, 문화적 가치, 보존상태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답사여행을 함께 온 느낌을 전해준다. 김주원 기자 (jikim@buddhapia.com)

행화·모사전

전통회화모임 '벽연회' 5~11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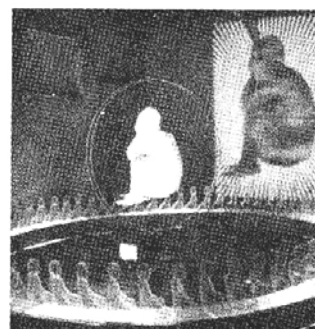
◇홍창원 작 '영산회상도'.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복스님의 제자이며 단청 이수자인 홍창원씨(44) 문화생들의 모임인 '벽연회'가 5일부터 11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제1회 단청전 및 경복궁 근정전중앙 모사전을 갖는다. 33명이 화원으로 있는 벽연회(회장 이영자)는 단청 행화의 기법을 전승하고 창의적 화업연마에 노력하는 전통회화연구단체.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산회상도, 관음도 등 전통회화 작품과 타조알에 그린 단청, 비구상 등 작품 33점과 경복궁 근정전 단청모양 모사품 등 총 80여 작품이 전시된다. 이경숙 기자

이문형 설치전

7·8일 경주 보문호 광장 불상소재로 인간성 상실 메시지



◇이문형 작 '일루션&비전' (부분).

불상을 소재로 한 이문형씨의 설치미술이 7~8일 경주 보문호 선착장광장에서 열리는 전위예술제에 선보인다. '일루션(Illusion) & 비전(Vision)'으로 이름붙여진 이 작품들중 하나는 지름 7m의 화단 둘레에 철망으로 조성된 120구의 불상을 놓고 아래에서 내온빛이 비추도록 했으며 다른 작품은 스크린으로 밀봉된 길이 6m의 정육면체에 불상을 설치해 회전시킴으로써 밖에서 불상의 그림자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투영되도록 해 허상을 좇는 현대인의 인간성상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윤호 기자

문화 단신

해인사 대장경 사진전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1일부터 3개월간 구광루에서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사진전과 불교도서·음반전시회를 갖는다. 팔만대장경 해인사 이운 6백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팔만대장경 관련사진 50여점을 비롯 각종 불서와 염불·명상·찬불가 관련 CD와 카세트테이프 1천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0599)31-1001

중국문화대전 앙코르전

지난 봄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중국

문화대전이 7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서 울 여의도 63빌딩 특별전시장에서 다시 열린다. 이 중국문화대전 앙코르전에는 예술의 전당에 출품했던 1천2백여점중 호평을 받은 시대별 중요작품 5백여점에다가 기인열전 예인열전 등 불거리를 추가했다. 진시황 동마차, 병마용, 당삼채, 갑골문, 주작등, 혼천의 등 중국문화의 걸작들을 다시 볼 수 있다. (02)789-5663

찬불가 가사 현상공모

대한불교 찬불가제정위원회(위원장 정용우)는 불자들이 널리 부를수 있는 △찬불가 △불교가요 △불음가요 △악극대본(20분용) 등의 가사를 현상공모한다. 부문별 주제는 회향, 찬탄, 서원, 통과의례, 발원 등이고 응모기간은 9월 30일까지. (02)425-3002

김해박물관 개관 '가야문화 접석'

가야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고교학 전문 국립김해박물관(관장 성낙준)이 7월29일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서 개관했다.

철기문화를 꽃피워 온 가야문화를 집중조명한 김해박물관은 대지 1만5천여평, 연건평 2천8백여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컴퓨터 안내시스템, 선사시대 마을과 무덤모형, 가야 유적 분포 진판관 등을 만들어 한눈에 가야문화 개관을 훑어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김해박물관은 국립중앙

박물관과 동시대박물관이 1점씩 전시해온 보물 598호 오리모양토기 한쌍, 진주박물관이 전시해온 보물 637호 수레바퀴모양토기 등 5천여점의 유물을 인수·대여받아 전시한다.

전시1실은 신석기시대에서 가야상립기까지의 유물과 금관가야의 유물을 선보인다. 전시2실은 거대한 고분과 정교한 금은 세공품이 특징인 대가야를 비롯, 말갈옷과 금입사거리 자루칼로 유명한 아라가야, 소가야 등 가야연맹의 유물이 나라별로 전시된다.

우롱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증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롱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살자
- II. 불자의 살림살이
- III. 불자의 축원
- IV. 불자의 기도
- V. 일체교역을 벗어나는 길
-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원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8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